LG디스플레이 (034220)

1Q26 실적 Review, 설명회 Q&A 정리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sunwoo.kim@meritz.co.kr

RA 우서현
seohyun.woo@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4.23

1Q26 체질 개선으로 계절성 완화

1Q26 영업이익 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개선하며 지속해온 OLED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이 확인. 이는 1) 하이엔드 IT 세트군에서의 입지 확대, 2) 장기간 지속해온 OLED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과 원가 절감 활동 효과 발현, 3)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진 것이 주요 요인. 다만, 고환율에 따른 외화부채 환산 손실로 세전이익은 -5,222억원을 기록

OLED 매출 비중은 60% (+5%p YoY), ASP는 1,244달러 (+55% YoY)로 가이던스 부합. 이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저수익성 중형 제품의 희석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동사는 실적 발표회를 통해, 1) 공급 가시성이 확보된 물량 중심의 투자 기조를 강조. 전일 공시한 1.1조원 규모의 OLED 기술 인프라 투자는 고객사와 일정 수준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 2)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을 위해 2분기 사업 체질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공유

동사의 회복 스토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분기로 평가. 특히 동사의 경우 미주 주요 고객 향으로 꾸준한 점유율 확대를 통해, 과거 대비 견조한 POLED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중. 다만 훼손된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폴더블 등 신규 시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이에 따라, 신규 폼팩터 진입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모바일 세트의 차별화 요인이 폼팩터로 변모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크게 올라갈 전망

투자 계획 8G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
2026년 Capex는 전년대비 증가한 2조원대로, 필수 경상 투자와 미래 기술 중심의 기존 투자 전략을 재차 강조. 아울러, 기보유 인프라 활용을 통한 투자 효율화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공유

2Q26 가이던스 출하 면적: 10% 초반 QoQ 증가, ASP: 10% 초중반 QoQ 하락을 제시. 모바일 비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제품군 중심의 출하 확대 영향 반영

실적발표 주요 데이터 정리

응용처별 매출 비중

- 모바일 등 37%, IT 37%, TV 16%, Auto 10%
- 모바일 제품군의 비수기 진입에 따른 출하량 축소로 계절적 변동성이 적은 Auto 제품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
- OLED 매출 비중은 60% (+5%p YoY) 기록. OLED 중심의 전환 지속

1Q26 출하 면적 / ASP

- 출하 면적: 320만㎡ (-21% QoQ, -41% YoY)
- 면적 당 ASP: 1,244달러 (-4% QoQ, +55% YoY)

2Q26 가이던스

- 출하 면적: 10% 초반 QoQ 증가. 대형 제품군 중심 출하 확대 전망
- 면적 당 ASP: 10% 초중반 QoQ 하락. 모바일 비수기 지속되는 영향 반영

CFO Highlight

-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임에도 불구,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와 원가 혁신 활동의 효과 확인되며 3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 사업체질 개선은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의 동력이 될 것. 비록,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동사의 강점 및 기술 장벽을 공고히 하여 적극 대응할 것
-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보유 인프라 최대 활용 방침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사업 부문별 코멘트

- 소형 모바일 OLED: 기술 리더십, 안정적인 출하 역량 바탕으로 고객 수요 적극 대응 예정
- 중형 IT OLED: 탠덤 OLED 및 하이엔드 LCD 중심의 고수익성 중심의 운영 기조 유지
- 대형 OLED: 화이트 OLED 등 프리미엄 라인업 공고히 할 예정. 아울러 게이밍 모니터 제품 적극 대응하여 고객 확보 주력할 것
- AUTO: 기술력 기반의 경쟁 우위 유지할 것

투자 활동 코멘트

- 2026년 Capex는 전년대비 증가한 2조원대로, 필수 경상 투자와 미래 기술 중심의 기존 투자 전략을 재차 강조
- 아울러, 기보유 인프라 활용을 통한 투자 효율화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공유

표1 LG디스플레이 1Q26P 실적 Review

(십억원)	1Q26P	1Q25	(% YoY)	4Q25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예상치	(% diff.)
매출액	5,534.0	6,065.3	-8.8%	7,200.9	-23.1%	5,839.9	-5.2%	5,876.8	-5.8%
영업이익	146.7	33.5	338.4%	168.5	-12.9%	148.0	-0.9%	225.2	-34.8%
세전이익	-522.2	-148.5	적자확대	-371.6	적자확대	40.7	적자전환	58.7	적자전환
지배주주순이익	-570.7	-262.7	적자확대	-356.1	적자확대	47.0	적자전환	55.3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2.7%	0.6%		2.3%		2.5%		3.8%	
순이익률(%)	-9.4%	-2.4%		-5.2%		0.7%		1.0%	

자료: LG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LG디스플레이 실적설명회 주요 Q&A

(LG디스플레이 컨퍼런스콜 참고)

Q1 **투자 활동** **전일 공시한 1.1조원 규모의 OLED 투자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경쟁사가 북미 폴더블 독점 공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인지 혹은 신규 폼팩터인지?**

A1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며,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로 귀결되고 있어 산업 플레이어 모두가 적극적. 동사는 OLED 사업에 집중할 것이며, 사업 내 경쟁력 유지 및 신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OLED 기술 개발 진행 중.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은 위와 같은 맥락.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기술 개발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

아울러, 폴더블 관련 입장은 기존과 동일.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시장 규모와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확실한 기회요인이 가시화될 때까지 운영 효율화 및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집중할 예정

Q2 **대외 환경** **메모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생산 차질 혹은 고객사들의 가격 인하 압박 등 체감되는 부분 공유 부탁**

A2 메모리, 유가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접근할 필요. 상반기에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고객사들의 풀인 수요가 확인. 또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할 것. 하반기에는 부품 및 세트 가격 상승 등으로 시황 점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

고객, 제품군별로 그 영향도는 각기 다르며, 특히 저가형 제품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 오히려 대형 세트 업체에게는 그 영향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분명 존재할 것으로 예상.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 바탕으로 고객사와 협력 강화할 것이며, 원가 절감 활동 지속하여 체질 개선 이어갈 것

Q3 **대형 패널** **부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동사의 대형 패널 사업의 영향도와 향후 대응 전략은?**

A3 글로벌 선도 업체와 하이엔드 OLED 라인업 강화를 추진 중. 아울러, 중저가 OLED TV 라인업도 확대해가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 도모. 더불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LCD에서 OLED 빠르게 전환 중. 자사 전체 출하량에서 작년 10% 초반대에서 올해 2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TV와 모니터 간 최적의 생산 배분을 통해서 시장 리더십 공고히 할 계획

Q4 **8G 투자** **IT 제품군의 흑자전환 시점은? 경쟁사들 8G OLED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동사의 향후 전략은?**

A4 올해 IT 업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1Q26 출하량 감소하였으나 제품 믹스 강화 등으로 수익성 방어에는 성공. 연간 하이엔드 중심으로 대응하여 전년대비 수익성 개선 이어갈 것
태블릿, 모니터 등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전환 중. 다만, IT 제품은 고객군과 스펙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 전방 OLED 제품 수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 겸비할 것. 기보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시장 개화 시점에 맞춰 늦지 않게 대응할 예정

Q5 **사업 전략** **구조조정 규모와 비용 반영 시점은?**

A5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에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 OLED 중심의 사업 개편이 진행 중이기에 사업 구조조정, 제품 포트폴리오, 원가 혁신 등 다방면에서 추진. 반복되는 개선 활동에 주주분들의 높은 피로도 또한 이해.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동사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

아직 프로그램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비용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반복되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의 안정성 등을 위해 단기간에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목표

2분기는 고질적인 계절적 비수기이나, 그간의 구조 및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올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했었음.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이번 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봐주길 요청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